이제는 생활을 '구독'하는 시대!

구독서비스의 모든 것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서비스'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구독'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마다 배달되던 녹즙이나 우유 등도 구독서비스의 한 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다양한 제품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구독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부 자료출처. B Journal, Sometrend

기업과 소비자의 윈-윈

우유나 신문 등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구독 비즈니스가 넷플릭스가 몰고 온 열풍을 타고 유통·소비재, 미디어·콘텐츠·게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전 방위적인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 제품군이 한정적이었던 유통업계가 최근 그 영역을 과자, 제빵, 주류, 과일 등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커피 구독', '고기 구독', '술 구독', '빵 구독'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구독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장기적인 관계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는 저렴한 금액으로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이를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는 요즘, 외출하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집 앞까지 배송되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언택트 시대의 니즈를 충족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편리한 구독서비스들

1. 커피덕후를 설레게 하는 '커피 구독'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 음료로 자리잡은 '커피'. 이를 겨냥해 많은 기업에서는 원두 및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블루보틀'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원두, 중량 등을 맞춤형으로 일정 주기에 따라 배송하고 있으며 프릴츠커피에서도 '커피클럽'이라는 구독서비스를 실시, 원두뿐만 아니라 콜드브루, 드립백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2. 집안일도 구독서비스로 해결, '빨래 구독'

일상생활에서 가장 귀찮음을 많이 느끼는 '집안일' 중 빨래를 해결해주는 구독서비스도 있다. '런드리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빨래수거함 '런드렛'을 임대받을 수 있는데, 런드렛에 안심고리를 연결하면 세탁물의 도난과 분실을 막을 수도 있다. 밤 11시 전에 빨래를 런드렛에 넣고 앱으로 수거요청을 하면, 다음 날 세탁 된 빨래가 배송된다. 원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3. 건강까지 챙겨주는 '영양제 구독'

우리가 매일 흔하게 접하는 영양제를 맞춤형으로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필리'는 건강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후, 소비자의 답변을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매달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정작 지금 자신에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모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내 반려동물을 위한 '펫 용품 구독'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 용품 관련 구독서비스도 등장했다. 장난감을 포함한 플레이키트, 다양한 간식, 반려동물 생활용품, 펫 가전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화식(불에 익힌 음식)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가족 개념이 강화되면서 보험상품, 건강 문진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